

현장 목소리로 만드는 건강한 안전 일터!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 개최

- 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, 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센터 발전 방안 모색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와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김현중)은 3.18.(수) 10시 30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장 및 직원 250여 명과 함께 「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」을 개최하였다. 이번 행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, 근로자건강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「근로자건강센터」는 2011년 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24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,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산업위생사,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번 행사는 근로자건강센터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여, ① 근로자건강센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(1부), ② 센터 운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센터장 회의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(간호·근골격계·산업위생·직업심리) 전문화 교육(2부) 순으로 진행되었다.

특히, 타운홀 미팅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참석자들과 열띤 정책 소통을 하였다. 자유롭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고,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.

참석자들은 ▲근로자건강센터의 보건분야 및 안전분야 합동 지원 방안, ▲과로사예방을 위한 센터의 차별화 방안, ▲센터의 인력 및 기능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을 가감 없이 제안하였다.

한편,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는 “노동부,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, 건강한 안전 일터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며,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면 좋겠다”라고 말하였다.

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일하는 사람의 건강지킴이, 근로자건강센터가 이제는 건강 상담을 넘어, 지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과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안전보건 통합 지원체계로의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”라며,

“오늘 제안된 현장의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,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,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근로자건강센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 행사 개요

2.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 말씀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재 (044-202-8892)
담당 부서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	책임자	부 장	문현곤 (052-703-0670)
		담당자	차 장	이구용 (052-703-0671)



붙임 1

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 행사 개요

□ 일 시: '26. 3. 18.(수) 10:00 ~ 16:30

□ 장 소: KT 대전인재개발원(대전 서구 갈마로 160)

* ▲(타운홀 미팅) 제2연수관 중강당, ▲(센터장 회의, 분임 교육) 교육장(5개실)

□ 참석자: 약 270명

○ (노동부) 산업안전보건본부장, 산업보건보상정책관, 직업건강증진팀장 등

○ (공 단) 안전보건사업이사, 산업보건실장, 건강증진부장 등

○ (센 터) 센터장 및 직원 250명

□ 주요 내용 및 일정(안)

○ 현장 의견 청취 및 센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타운홀 미팅

○ 센터장 회의, 분야별* 전문화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향상 유도

* 간호, 근골격계, 산업위생, 직업심리

*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말씀까지 공개

구분	시간		내용	비고
1부	10:00~10:20	20'	등록	-
	10:20~10:25	5'	사전 안내	사회자
	10:25~10:30	5'	개회사	
	10:30~12:00	90'	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말씀 + 본부장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	전체
오찬	12:00~13:30	90'	오찬 및 자유시간	
2부	13:30~15:30	120'	① 회의 근로자건강센터장 회의 ② 교육 분야별 직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	전체
	15:30~15:45	15'	휴식 및 이동	-
	15:45~16:10	25'	산업보건 My data 서비스 개요 및 사업 활용방안 안내	보건사업부
	16:10~16:15	5'	마무리 말씀	안전공단 이사
	16:15~16:30	15'	폐회사 및 기념촬영	사회자

< 인사 >

-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.
- 먼저, 바쁜 현장 업무 속에서도
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
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께
깊이 감사드립니다.
- 또한 평소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
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
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< 근로자건강센터의 의미 및 행사 개최 목적 >

-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, 경기서부, 광주 세 곳에서
첫걸음을 내디딘 이후
지금은 전국 2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.
- 그동안 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
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
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.
- 센터는 건강상담, 근골격계 관리, 심리상담까지
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
우리 고용노동부 정책의 매우 중요한
산업안전보건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.

□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
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,
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도
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

○ 이러한 변화 속에서
앞으로 근로자건강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,
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
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
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오늘 이 자리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
현장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
진솔한 소통의 자리였으면 합니다.

○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,
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사항,
앞으로 근로자건강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
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야말로
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
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

< 고용노동부의 역할 >

- 앞으로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 상담 기능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함께 하는 통합 지원체제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도 여러분과 함께 근로자건강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마무리 >

- 타운홀 미팅 이후에는 센터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뿐 아니라 업무 분야별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화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.
-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-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,
- 오늘 이 자리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